



‘바이킹 징크스’ 2:2 끝나지 않았다

2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독일월드컵 축구 B조 조별리그 3차전. 후반 40분 잉글랜드가 한 골을 넣자 퀼른 월드컵 경기장은 ‘종가의 한(恨)’을 푸는 함성으로 떠나갈 듯 했다.

4만3천명을 수용하는 관중석의 70%를 점한 잉글랜드 팬들은 1968년 영국 웬블리 스타디움을 기억하는 듯 했다.

잉글랜드는 당시 마틴 피터스, 보비 찰튼, 로저 헨트의 골로 ‘바이킹 군단’ 스웨덴을 3-1로 격파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무려 38년 간 잉글랜드는 ‘바이킹의 저주’에 시달려왔다.

11차례 맞대결에서 4무7패.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2002년 한일월드컵 조별리그에



잉글랜드, 스웨덴전 무승부

68년이후 한번도 승리 못해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 예선에서 두 번 모두 비겼고 1999년에 펠쳐진 유로2000 예선에서는 1무1패로 당했다.

잉글랜드 입장에서 스웨덴은 ‘기묘한 벽’과도 같았다.

객관적 전력이나 선수들의 이름값에서 분명히

우위에 있지만 스웨덴만 만나면 원지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다.

이날 웨인 루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신 투입된 잉글랜드의 교체 멤버 스티븐 제라드(리버풀)가 후반 40분 조 콜(첼시)의 크로스를 강력한 헤딩슛으로 꽂아넣었다.

2-1로 리드를 잡은 잉글랜드는 곧 저주를 풀어낼 것 같았다.

남은 시간은 5분. 인저리타임을 감안하더라도 8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계가 90

분으로 흘러가던

순간. 헨리크

라르손(바르

셀로나)이

끝내 종가의

발목을

낚아챘다.

길게 스로

인이 넘어오자

라르손은 문전으로

쇄도하며 오른발을 찍어눌렀고 스치듯 밭에 땅은 불은 잉글랜드 골키퍼 폴 로빈슨의 왼쪽 틈새로 빨려들었다.

잉글랜드 팬들의 함성은 일순 탄식으로 변했다. 잉글랜드는 ‘실리’면에서 전혀 잊은 게 없었다.

당초 목표했던대로 조 1위를 차지했고 16강에서 독일을 꾀했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를 맹폭하며 6골을 몰아넣은 아르헨티나와 8강에서 만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씻어냈다.

하지만 ‘38년 간 맺혀온 한’을 이번만은 풀어줄 것이라는 팬들의 기대는 라르손의 극적인 동점골 앞에 물거품이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주요 경기 결과

독일 클로제 4골 ‘득점 선두’

독일 36년만에 조별리그 3승

▲독일-에콰도르 <3-0>

독일로서는 수도 베를린에서 갖는 첫 경기에서 승전고를 울린 데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36년만에 조별리그에서 3승을 거두는 기분 좋은 한판이었다. 흥관중의 열성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독일은 경기 시작부터 일방적인 공세를 펼쳤다. 독일은 전반 4분 클로제가 선취골을 넣은 뒤 40분 뒤 다시 두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무기력하게 전반을 마친 에콰도르는 후반 들어서도 별다른 반전을 보지 못했다. 독일의 밀집수비를 뚫기 위해 위협적인 중거리슛을 몇 차례 날렸지만 골키퍼 엔스 레만(아스날)의 손에 막혀 만회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독일은 후반 12분 역습 기회에서 신예 루카스 포돌스키(FC 뮌헨)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논스톱 슬라이딩 밸리슛으로 밀어넣어 3-0으로 승리를 굳혔다.

초반부터 몸싸움…반칙 32개, 경고 10개

▲폴란드-코스타리카 <2-1>

독일 월드컵 본선 마지막 경기에 나선 양팀은 당초 맷빠진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초반부터 거친 몸싸움을 주고 받으며 격돌했다.

코스타리카는 초반 주도권을 잡고 전반 25분 선취골을 넣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의 우세는 오래 가지 못했다.

반격에 나선 폴란드는 33분 코너킥으로 건너온 볼을 코스타리카 골키퍼가 잡으려 뛰쳐 나오다 비운 끝으로 바르토스 보사츠키(레흐 포즈난)가 밀어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폴란드는 후반 21분 오른쪽 코너킥 때 보사츠키가 헤딩슛으로 결승골을 뽑아냈고 결국 코스타리카를 2-1로 누르고 값진 1승을 올렸다. 양팀은 32개의 반칙을 주고 받으며 10개의 경고를 나눠 가지는 공방전을 치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트리니다드토바고 16강 좌절

▲파라과이-트리니다드토바고 <2-0>

트리니다드토바고는 21일 카이저스라우테른 프리츠-발터-슈타디온에서 벌어진 2006년 독일 월드컵 B조 3차전에서 파라과이에 0-2로 졌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이로써 승점 1점(1무2패)으로 조 2위 스웨덴(1승2무, 승점 5)을 넘지 못해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파라과이에서는 1차전에서 자책골을 내준 것 뿐 골을 터뜨리지도 못했고 2패로 일찌감치 16강 진출이 좌절됐기 때문에 체면이라도 차려야 할 승부에서 1승을 쟁겼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갈 길이 바빴지만 ‘0골 3패’로 돌아갈 수 없다는 파라과이의 오기와 어이없는 자책골에 발목이 잡혔다.

일본, 브라질 이겨도 자력진출 어려워

2006 독일월드컵 조별리그 종료 하루 전날인 23일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호주와 일본이 속한 F조,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된 H조에서 각 1장 남은 16강 티켓 결정된다.

특히 크로아티아와 2차전에서 힘겨운 무승부를 거둔 일본은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16강 진출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야 한다.

호주 대표팀 ‘사커루’를 32년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킨 히딩크는 크로아티아와 물러설 수 없는 담판을 벌인다.

사우디아라비아도 16강 진출이 이미 확정된 ‘무적한대’ 스페인을 상대로 희미한 가능성에 도전하고, 같은 조의 우크라이나와 뷔니지도 한 판 승부를 견디는 것.

일본은 호주-크로아티아전이 무승부로

끌리면 호주와, 크로아티아가 이기면 크로아티아와 골득실차를 따져야 하는데 현재 ‘-2’로 가장 불리하다.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1승1패의 히딩크 사단은 크로아티아나 일본보다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크다.

히딩크는 크로아티아를 이기면 자력으로

1차전에서 히딩크 사단에 1-3으로 덜미를 잡히고 2차전에서 크로아티아의 페널티킥까지 막아내면서 무승부를 일궈내 16강 진출의 불씨를 살렸지만 마지막 상대는 최강인 브라질이다.

일본은 브라질을 이긴다 해도 자력으로 16강이 보장되지 않는다.

일본이 기대해야 할 시나리오는 브라질을 최소한 2골 차 이상으로 이기고, 같은 조의 크로아티아가 호주에 이기거나 무승부를 해야 하는 것.

일본은 호주-크로아티아전이 무승부로

끌리면 호주와, 크로아티아가 이기면 크로아티아와 골득실차를 따져야 하는데 현재 ‘-2’로 가장 불리하다.

우크라이나가 뷔니지와 비겨도 스페인이

사우디를 꺾으면 16강을 확정짓는다.

우크라이나는 뷔니지와 비기고 사우디가 스페인을 이기면 승점 4점으로 사우디와 골득실을 따지게 되는데 ‘-4’인 사우디보다는 4골이나 앞서 있어 훨씬 유리하다.

우크라이나, 사우디 보다 유리

▲H조 우크라이나-튀니지(23일 23시·베를린), 사우디아라비아-스페인(23일 23시·카이저슬라우테른)=남은 1장의 16강 티켓 확보에 유리한 고지는 우크라이나가 선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4-0으로 맹폭하면서 1차전 스페인전에서의 0-4 패배를 만회, 뷔니지와 16강 진출을 위한 결전에 나선다.

스페인이 2승으로 16강에 진출한 가운데 1승1패로 승점 3점을 획득한 우크라이나는 1무1패의 뷔니지를 이기다면 바로 16강행 티켓을 거머쥐지만 지면 탈락이다.

우크라이나가 뷔니지와 비겨도 스페인이 사우디를 꺾으면 16강을 확정짓는다.

우크라이나는 뷔니지와 비기고 사우디가 스페인을 이기면 승점 4점으로 사우디와 골득실을 따지게 되는데 ‘-4’인 사우디보다는 4골이나 앞서 있어 훨씬 유리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